

北 '톱3' 대사들 평양행 대외 메시지 준비하나

주중·주러·주유엔 北 대사들 연 귀국 "이례적"

하노이 2차 북미 정상회담이 결렬된 이후 북한의 주요 대사들이 최근 한꺼번에 귀국길에 오르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지재룡 주중 북한대사, 김형준 주러시아 대사, 김성 유엔주재 북한대표부 대사 등은 지난 19일 중국 베이징 서우두 공항을 통해 평양으로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 대사는 북한의 주요국, 대표부 대사들로 한 번에 평양에 귀국하는 일은 드문 것으로 평가된다.

김인태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책임연구원은 "북한 해외 대사 중에서는 이들이 '톱3'에 들어가는 인물들"이라며 "3명이 동시에 움직이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김 연구원은 "모든 북한 대사들이 움직였다면 대사급 회의 일 수 있으니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면서 "김정은 시대 이후에 대사급 회의가 있었지만 아직 정례화된 것 같지는 않다"고 덧붙였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집권 이후 2015년, 2017년, 2018년 세 차례

평양에서 대사회의(우리의 공관장 회의)를 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9월9일 정권수립 70주년을 2개월 정도 앞두고 대사회의를 주재한 바 있다.

아울러 이들의 귀국이 4월 초로 예상되는 제14기 최고인민회의 1차 회의 개최에 초점이 맞춰졌을 가능성도 높다. 북한은 지난 12일 우리의 국회의원 총선거에 해당하는 제14기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를 통해 대의원을 선출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제13기 최고인민회의 전례를 감안할 경우, 제14기 대의원 명단에 있는 지재룡·김형준·김성이 각각 주중, 주러, 주유엔대사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특히 주중대사와 유엔주재 북한대표부 대사는 최고인민회의의 당연직 대의원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14기 최고인민회의 1차 회의를 계기로 북한의 대외 메시지가 발신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면서, 이들 대사를 불러들여 대외 메시지를 수립하는 작업을 진행하지 않겠냐는 분석도 제기된다.

특히 중국과 러시아 등 북한의

주요 우방국가 대사들의 움직임인 만큼 김 위원장이 신년사에서 밝힌 '새로운 길'에 대한 메시지가 조정되는 것 아니겠냐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나온다.

중국과 러시아를 비핵화 협상 테이블에 끌어들이므로써 이를 지렛대로 삼아 교착 국면을 돌파한다는 메시지를 발신할 수도 있다는 분석이다.

김동업 경남대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일단은 (대사들 움직임을) 최고인민회의의 일환으로 보인다"면서 "다만 최고인민회의를 겸해서 김정은 위원장이 대내적 메시지를 줄 것이라고 본다. 대내적 메시지는 대외적 메시지와 같이 갈 것이라고 본다"고 밝혔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최근 북미 교착 국면에서 미국이 전방위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대사들이) 북한의 대응 지침을 김정은 위원장으로부터 직접 하달을 받으려고 온 것일 수도 있다"면서 "너 지켜봐줬지만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다만 중국이나 러시아와 관련한 김 위원장 등 북한 최고지도부의 특이 동향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바른미래, '패스트트랙' 의총 격돌...유승민 등 중도퇴장

유승민 "아무리 좋은 선거법이라도 패스트트랙 안돼"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바른미래당 최고위원회의 겸 의원총회에 참석하는 유승민 의원(가운데)이 이상숙, 유의동 의원과 함께 심각한 표정으로 국회 본청으로 들어오고 있다.

여여당이 합의한 선거법 개정안과 개혁법안의 패스트트랙(신속안건 처리) 상정을 놓고 바른미래당 의원들이 20일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었지만 결론을 내지 못하고 내홍만 심화되는 양상이다.

이날 의총은 김관영 원내대표가 선거법 개정안 패스트트랙 상정은 물론 수렴 절차가 필요없다고 한 발언에 반발한 유승민, 이상숙 의원이 전날 긴급 의총 소집을 요구하면서 열리게 됐다.

의총에는 손학규 당대표와 김관영 원내대표, 권은희 정책위의장, 하태경 최고위원 등 지도부를 비롯해 당원권이 정지된 3명을 제외한 의원 26명 중 24명이 참석했다. 그러나 유승민·이혜훈·이태

규·김중로·이연주 의원은 중도 퇴장했다.

이날 의총에서는 바른정당 출신 의원들을 중심으로 여여당이 마련한 선거법 개정안의 합의 내용 중 연동형 비례 등에 문제를 제기하거나 선거법의 패스트트랙 자체를 반대하는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패스트트랙 상정 여부를 투표로 통해 당론으로 정하지는 의견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 의원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이나 검경수사권조정법에 대한 정교한 조정이 필요하고 자당의 당론도 확정하지 않은 만큼 개혁법안의 패스트트랙 지정을 반대하는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선거법을 개혁법안과 연계해 패스트트랙으로 상정하는 것 자체를 반대한 의원이 있었다고 한다.

반면 선거법과 개혁법안의 패스트트랙에 찬성하며 최종 결정을 당 지도부에 위임하자는 의견을 낸 의원들도 상당수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 원내대표는 여여 4당의 최종 합의안이 나오면 무기명투표라도 해서 패스트트랙을 결정하자고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선거제 개편이나 패스트트랙을 반대하는 일부 의원은 불쾌감을 드러내며 중도 퇴장하기도 했다.

유승민 바른미래당 전 대표는 의총 도중 퇴장하면서 기자들과 만나 "선거법 패스트트랙은 안 된다고 분명히 했다"며 "선거법 내용은 무관하게 아무리 좋은 선거법이라도, 패스트트랙을 하는 건 맞지 않다"고 말했다.

이연주 의원은 "공수처법이 지척 잘못하면 북한 보위부법 같은 결과가 될 수 있다고 우려하는데, 특히 문재인 정권이 검찰을 부리는 걸 본다면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이 전개될 거라 걱정하고 있다"며 "공수처뿐 아니라 검경수사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반대를 많이 하시기 때문에 이것을 묶어서 하는 것에 대해서 대다수 많은 분들이 우려를 표명하는 것 같다"고 의총 분위기를 전했다.

김중로 의원은 "연동형 자체를 싫어하기 때문에 반대했다"며 "선거제 개혁이든 협상하는 건 순수성이 결여되기 때문에 민주당의 품수에 넣어야 안 된다"고 주장했다.

김윤호 서울취재본부장



한국당, 의회 민주주의는 죽었다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의원총회에서 나경원 원내대표를 비롯한 참석 의원들이 '의회 민주주의는 죽었다'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文대통령,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문형배·이미선 판사 지명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신임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문형배 부산고법 수석부장판사와 이미선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를 각각 지명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이러한 인사를 단행했다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서기석·조용호 헌법재판관이 내달 18일 6년의 임기를 마치고 헌법재판소를 떠나면서 후임 인선 절차가 진행됐다.

문형배 후보자는 진주 대이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18기 사법연수원 출신인 그는 부산지법 판사, 부산고법 판사를 역임했다. 이어 창원지법 부장판사, 부산지법 부장판사, 부산고법 부장판사, 부산가정법원장, 부산고법 수석부장판사(現)를 지냈다.

신임 헌법재판관 후보자 프로필	
문형배 (55) 1965년, 경남 하동 진주 대이고등학교 서울대학교 법학과 사법연수원 18기	이미선 (50) 1970년 부산 확산고 부산대학교 법대 부산대학교 법학 석사 사법연수원 26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18기 사법연수원 부산지법 부장판사 부산고법 판사 부산고법 판사 창원지법 부장판사 부산고법 수석부장판사(現)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26기 사법연수원 대전고법 판사 서울지법 판사 청주지법 판사 수원지법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수원지법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現)

이미선 후보자는 부산에서 확산고교를 나와 부산대 법대를 졸업했다. 동 대학원에서 법학 석사학위를 받았다. 26기 사법연수원 출신인 그

는 서울지법 판사, 청주지법 판사, 수원지법 판사, 대전고법 판사를 지냈다. 이어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수원지법 부장판사 그리고 현재까지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를 지냈다.

야호는 청소년의 외침이다.

야호센터는
인문-예술-사회참여로
청소년-지역주민과 함께합니다.

야호의 꿈

- 청소년이 지금 행복한 삶
- 청소년이 사유하는 삶
- 청소년이 예술을 향유하는 삶
- 청소년이 마을을 사랑하는 삶
- 마을 주민들이 세계시민이 되는 삶
- 마을 주민들이 삶을 위한 공부를 하는 삶
- 마을 주민들이 스스로, 더불어 살아가는 삶

062-960-6980
광산구 사일로 340번안길 5